

()哉

14. 曰 古者棺槨無() 中古棺七寸 槨()之. 自天子達於庶人. 非直爲觀()也 然後盡於人心. 不得不可以爲() 無財不可以爲(). 得之爲有財 古之人皆用之 吾何爲獨不然

15. “孟子去齊 宿於晝. 有欲爲王留行者 坐而言. 不應 隱几而臥. 客不悅曰 弟子齊宿而後敢言 夫子臥而不聽 請勿復敢見矣.” 에서 밑줄친 隱의 의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 ① 痛 ② 微 ③ 憑 ④ 細 ⑤ 依

16. “請野九一而助 國中什一使自賦. 卿以下必有圭田 圭田五十畝. 餘夫二十五畝.”에서 에서 밑줄친 隱의 의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 ① 玉 ② 規 ③ 笏 ④ 際 ⑤ 潔

17. “諸侯之禮 吾未之學也 雖然 吾嘗聞之矣. 三年之喪 ㉠齊疏之服 ㉡飡粥之食 自天子達於庶人 三代共之.”에서 ㉠, ㉡의 독음을 쓰시오. ㉠ (), ㉡ ()

[18~20] 다음 문장을 해석하시오

18. 孟子自齊葬於魯 反於齊 止於嬴. 充虞請曰 前日不知虞之不肖 使虞敦匠事. 嚴 虞不敢請. 今願竊有請也 木若以美然.

19. 且比化者 無使土親膚 於人心獨無慼乎 吾聞之君子 不以天下儉其親.

20. 孟子曰 民事不可緩也. 詩云 晝爾于茅 宵爾索綯 亟其乘屋 其始播百穀.

수고하셨습니다

[해 답]

- | | |
|----------------------------|--------------------|
| 1. 天吏 | 2. 龍斷, 望, 罔 |
| 3. 性善, 堯舜 | 4. 風, 草 |
| 5. 放辟, 邪侈, 罔 | 6. 仁政, 經界 |
| 7. 公田, 公事, 野人 | 8. 養, 教, 射, 人倫, 人倫 |
| 9. 貢, 助, 徹, 徹, 藉 | 10. 善國, 瘳 |
| 11. 君子, 野人, 君子, 野人, 野人, 君子 | 12. 改, 順, |
| 13. 官守, 言責, 官守, 言責, 綽綽, 餘裕 | 14. 度, 稱, 美, 悅, 悅 |
| 15. ③ | 16. ⑤ |
| 17. 자소, 전죽 | |

18. 맹자께서 제나라에서 초나라로 장사지내러가서 제나라로 돌아오는 길에 영땅에 머무렀는데 충우가 청하여 말하길 전날에 ‘제가 불초함을 알지 못하시고 저로 하여금 관만드는 일을 담당하게 하셨는데 급하여 제가 감히 청하지 못하였는데 오늘 원컨대 감히 청하고자 하니 ’관의 나무가 너무 아름다웠던듯 합니다.’

19. 또한 죽은자를 위하여 흙으로 하여금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홀로 기쁘지 않겠는가? 내가 듣기에 ’군자는 천하 때문에 그 어버이에게 검소하지 않는다.’ 하였다.

20.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농사일은 늦출수 없다. 시에 이르길 낮에 너는 가서 띠풀을 취하여서 밤에 너는 새끼를 꼬아 급히 올라 지붕을 잇고 비로소 백곡을 파종한다. 하였다.